



- ✓ 2020년 김포시립도서관 권장 도서
- ✓ 한국 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특별한 M을 해결하라! 미카의 수학 일기

제니퍼 스웬더 글 | 제니퍼 날치가 그림 | 제제의숲

열한 살 소녀 미카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장 일기

새 학년에 오르면서 새로운 학교에 간 미카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친한 단짝 친구였던 엘라와는 반이 달라졌고, 수학 선생님은 교과서 순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진도를 나갑니다. 게다가 엄마의 다리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늘 규칙적이고 정돈되어 있던 미카의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책은 미카가 겪게 되는 새로운 학교생활, 엄마의 암 투병, 단짝 친구와 소원해진 관계, 재혼한 아빠와 새 엄마와의 관계, 새 친구들과의 우정 등 환경과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는 수학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민을 수학적 개념에 대입하여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으며 조금씩 극복하고 성장해 갑니다.

내용 갈무리하기

◇ 주인공 미카에 대한 정보를 빈칸에 채워 넣어 보세요.

미카는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제 _____ 꼬투리입니다.

밴 선생님은 _____ 과목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_____ 를 쓰라고 합니다.

미카는 _____ 와 단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미카의 엄마는 _____ 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카는 디디, 첼시와 함께 _____ 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독해력 다지기

◇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왜 수학 일기를 써야 하나요?”

선생님이 대답한다.

“수학 일기를 쓰면 창조적인 문제들을 명백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학 일기를 쓰면 관련된 수학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시작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겁니다.”

선생님은 수학 일기라는 말을 할 때마다 칠판에 적힌 수학 일기라는 단어에 쓱쓱 밑줄을 긋는다.

“수학 일기를 쓰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탐구하고, 증명하고, 주장하고, 의심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였군요. 밴 선생님은 그 모든 생각들로 잔뜩 들뜬 것 같다. 선생님은 5학년 때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학 일기를 썼던 게 확실하다. 아니면 설마 선생님이 수학 일기를 발명한 건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학에 무슨 감정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다. 그냥 썩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닐 따름이다. 수학은 별로 재밌을 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다. 수가 수지 뭐. (중략)

밴 선생님이 덧붙인다.

“수학 일기를 쓰면 선을 넘어 색칠하기, 다시 말해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더니 빙그르르 돌아서서 칠판에 다시 무언가를 적는다.

1. 다음 중 밴 선생님이 말한 수학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 중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 ② 수학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어서
- ③ 수학 문제를 계산기보다 빨리 풀 수 있어서
- ④ 창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2. 미카는 처음 수학 일기를 쓰라는 선생님의 말에 어떤 반응이었나요? 또 만약 여러분에게 수학 일기를 쓰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독해력 다지기

◇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샘플에서 뭔가 발견된 것 같아.”

약간 당황스럽다. 발견은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래된 휴지에 돌돌 말려 책가방 밑바닥에 꽂꽂 숨겨져 있던 걸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로 보아하니 이걸 발견해서 좋은 그런 종류가 아닌 게 확실하다. /

“있잖니, 암세포는 여행을 다닐 수가 있거든.”

그럴 줄 알았다. 본래 여행이란 좋은 거다. 유람선 여행이나, 사파리 여행,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로 떠나는 여행처럼. 그런데 애나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 부정적인 건 나쁜 거다. 물론 암의 경우를 빼면. 암은 부정적인 것, 즉 음성이 좋은 거다. 이를테면 잉크를 주입한 엄마의 림프절을 철저히 확인했을 때, 그 결과가 음성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테니까.

(나)

“나한테는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한 발은 바닥에 대고 탁탁거린다. 마치 내가 엄마고, 엄마는 아주, 아주 큰 말썽을 부린 아이처럼.

할머니가 묻는다. “뭘 말해?”

나는 답을 기다리며 계속 엄마만 보고 있다. (중략)

“그리고 너희 엄마가 다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너희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말을 자른다. “아빠한테 말했다고요?”

웬지 그 말에 더할 수 없이 화가 치민다. 내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아빠한테 말했다고요? 결정을 다 해 놓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1. (가)에서 나온 발견, 여행, 음성처럼 상황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나)의 글에서 미카가 화가 난 이유를 짐작하여 쓰세요.

어휘력 쓱쓱 키우기

1.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입니다. 문맥과 낱말 뜻을 고려할 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1) 자기 꼬투리를 찾아 우주에서 내려온 5학년 외계인들이 그 요금소를 책임지고 깨끗이 닦으라는 임무를 ()한 덕분일지도 모른다.
- 2) “짜이 쓴 다른 일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일기를 빼면, 수학 일기는 일기 주인의 () 재산이니까요.”
- 3) 일부러 손을 들고 모두에게 수학은 진짜 ()하다는 말을 할 생각은 없다.
- 4) “그래도 조심하거라. 쓸데없이 복도에서 ()하면 규칙 위반이니까.”
- 5) “그런데 엄마가 그 치료를 일찍 끊으면, 암이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보기

- ① 배회: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 ② 공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 ③ 재발: 다시 발생함.
- ④ 사유: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 ⑤ 완수: 뜻한 바를 완전히 이루거나 다 해내다.

2. 다음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를 읽고, 뒷문장의 내용으로 유추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어 보세요.

엄마가 서랍에서 포크 세 개를 꺼내며 말한다.

“□□□이 □□□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나도 안다. ‘아무 소식’도 없는 게 곧 ‘좋은 소식’이나 똑같다는 말이다.

⇒ □ □ □ 이 □ □ □

어휘력 쑥쑥 키우기

3.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입니다. 밑줄 친 표현 ㉠~㉢의 알맞은 뜻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나는 먼저 내 생각을 밝히고 그 이유를 나열하는, 거창한 설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밴 선생님이 어깨 너머로 내 일기를 읽고 왜 선생님 이야기를 썼는지 ㉡**의아해할까** 봐 걱정스럽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아주 미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완벽하게 ㉢**아귀가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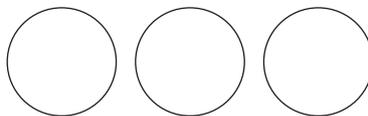
보기

- ㉠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다.
- ㉡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
- ㉢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 (), ㉡: (), ㉢: ()

4.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의 내용 일부입니다. 다음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내가 인명 구조원이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수영 팀에 있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내 뇌를 썩히는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엄마 목소리다. 숨 쉴 틈도 없이 ○○○처럼 쏟아져 나온 말들이 마구 뒤엉킨다.



뜻: 탄알을 쉽게 장전하여 빨리 발사할 수 있는 포, 빠르게 말하는 것을 비유함.

사고력과 창의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미카의 수학 일기》에서 미카가 자신과 가족을 집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이 아닌 학교, 학원 등의 친구들과의 집합을 만들어도 좋아요. 교집합과 합집합을 그림으로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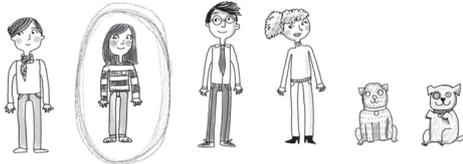
우리 집 집합



집 = {엄마, 나}



집 ∪ 플로리다 = {엄마, 나, 아빠, 케이티 아줌마, 윌리, 프리즈}



플로리다 집합



가족 = {아빠, 케이티 아줌마, 윌리, 프리즈, 나}



집 ∩ 플로리다 = {나}



사고력과 창의력 쑥쑥 키우기

2.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단, 카드에는 반드시 수학적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없으면 나는 < 0’이라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무리무리하게 좋아.’와 같이 말이지요. 그림도 그려서 예쁘게 꾸며 보세요.

정답 및 답안 예시

1쪽

미카는 하이브리지 중학교 5학년 제 2 꼬투리입니다.

밴 선생님은 수학 과목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수학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미카는 엄마와 단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미카의 엄마는 흑색종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카는 디디, 첼시와 함께 계산기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쪽

1. ③

2. 미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나에게 수학 일기를 쓰라고 하면 왠지 머리가 아플 것 같다.

3쪽

1. 예) 양성, 양성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질이지만, 암 진단 결과에서는 좋지 않다.

2. 미카는 자신에게는 엄마의 몸 상태를 숨기고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 엄마에게 화가 났다.

4쪽

1. 1)-⑤, 2)-④ 3)-② 4)-① 5)-③

2. 무소식이 희소식

6쪽

예) 피아노 학원 = {나, 준수, 혜윤, 중기, 슬아}

태권도 학원 = {나, 준수, 슬아, 보민, 현희, 지율}

합집합 = {나, 준수, 혜윤, 중기, 슬아, 보민, 현희, 지율}

교집합 = {나, 준수, 슬아}

5쪽

1. ㉠: ㉡, ㉢: ㉣, ㉤: ㉥

2. 속사포

7쪽

예) 너는 내 $\frac{1}{2}$ 이야.